

“MB정권 사찰, 특별법까지 갈 것”

민주 김병기 의원 “공소시효 지나 아쉬워… 지금은 도리 없어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 목표 삼아 파헤쳐 근절해야 될 문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결국은 자료 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일단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TF팀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 절차를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하는 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은 전남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 자리에서 정보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시 사찰 관련 자료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나아가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그 불법정보를 처리하려면 그걸 누군

가 열람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다른 곳에서 유출했을 경우 처벌도 필요하고, 그럴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게 참 아쉽다”며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했던 불법사찰에 대해서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지만 내가 국정원법을 그때 개정받을 할 때 정보기관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감찰관을 두어서 정보감찰관으로 하여서 그 내부를 감시, 감찰하게 해야 된다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건이 터졌을 때 정보감찰관이 있었다면 신속하

게 정보감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찰 논란이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도 차근차근 하면 된다”며 “이게 모든 분들이 자꾸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나가는 소나기 일과성으로 이렇게 물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로 삼아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하고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문제”라며 “선거량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뉴스스

‘공공의료대, 남원에서 설립을’

이명연 도의원, 챌린지 동참… “공공의료체계 확립 필요”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환경복지위원장·전주 11)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챌린지에 17일 동참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며 “남원 국립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공

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보건으로 정책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연 위원장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뜻을 함께하기 위해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나기학, 진형석 의원을 지목했다.

/유호상 기자

서부산림청, 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집중 육성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국유림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거나, 지자체와 공동산림사업, 국유림의 보호 협약을 통한 입산불 양어 등 국유림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18~2020년) 동안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해 ‘산촌형 사회적경제기업’ 25개소를 발굴하고, 사회적 경영을 통한 산촌 안정된 일자리 49명을 창출했다.

특히, 국유림 현장 산림사업 실행 주체인 영림단 8개단을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10개를 신규 발굴하고, 국유림 현장의 공동산림사업에도 활성화를 통해 사업참여자를 산림일자리 창출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故 백기완 선생 빈소 찾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작년 수능때 사용된 칸막이 안전관리·점검 대책 마련을”

민주 윤준병 의원, 환경부 업무보고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7일 개최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사용된 방역용 플라스틱 칸막이가 방치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재사용·재활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점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와 교육부가 작년 12월 3일 수능 시험에 사용된 방역용 플라스틱 칸막이를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고 지속적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실질적인 협의 및 협업체계 구축이 전혀 없었고 환경부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세부 내용 등 재사용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수능 시험장에 설치된 칸막이 53만9,382개 중 수능 이후 76.2%에 해당하는 41만 1,103개가 시험장 학교(24만 755(44.8%))와 시도교육청 관내 유·

초중등학교(우선 배정), 지자체 기관 등(17만348(31.6%))에 재사용을 위해 배정 조치했지만, 참고에 방치되는 등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수능에서 사용된 책상 칸막이들을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소독조치를 한 후 시험장학교와 일선 유·초중등학교 등에 재활용토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재사용·재활용토록 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유호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고령·영세농에 맞춤형 농기계 임대

도, 농업기계화사업 85억원 투자

전북도가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기계화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노령화 가속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가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등 5개 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하고, 농기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령 농민 및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61억원을 맞춤형으로 투자해 농기계 개인 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임대 해주는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에 1개 시·군 1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불리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여성친화형농기계를 8개 시·군에 9억원 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노후화된 농기계를 신형 농기계로 대체해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후장비 대체에 12개 시·군 25억원과,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업인 등에 대한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업대행 장비도 2개 시·군 및 7개 농협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중·대농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과정에서 농산물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중·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12개소, 24억원을 투자해 농업의 기계화를 한 층 높일 전망이다.

더불어, 농업기계화 확대에 따른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도 80%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가까운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